

역대 최고의 전국체전... 전남, 도약의 문 열었다

제104회 전국체전 폐막

치밀한 대회 준비·높은 시민의식
선수들 열정·실력 어우러진 축제
글로벌 관광·체육·문화 도시
역량과 잠재력 국내외에 보여줘



극찬을 받고 있는 수준 높은 개최식을 시작으로 지난 13일부터 7일간 이어진 제104회 전국체육대회가 19일 막을 내렸다. 2008년 여수 이후 15년만에 목포를 중심으로 전남 22개 시·군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분산 개최된 이번 전국체전은 전남의 발전상과 미래 도약을 위한 태세를 대내외에 천명하며, 새로운 전남의 시작을 알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관련기사 2·3·4·18면〉

2년에 걸친 철저한 준비로 차질 없이 대회를 운영하고, 자원봉사자·도민의 참여를 이끌어내 전남의 지력을 하나로 모아냈다. 여기에 3만여 명의 선수·임원과 함께 전남을 찾은 해외동포, 관광객 등이 전남 곳곳에서 열린 수목비엔날레, 국제농업박람회,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등 대규모 이벤트와 중소규모 공연·전시·행사 등을 찾으면서 지역 경제가 잠시나마 활기를 되찾기도 했다. 전국 각지·해외동포 선수들은 그동안 피땀 흘려 닦은 자신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대회의 감동을 더했다.

전남도는 19일 “옹비하라 전남의 땅 울림”을 주제로 지난 13일 열린 개최식과 함께 시작된 제104회 전국체전이 “울림 : 하나된 우리”를 주제로 한 폐회식을 마지막으로 대장정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체전은 17개 사·도와 해외에서 선수 1만9895명, 임원 9894명 등 2만9789명의 역대 최대 규모의 선수·임원이 참가해 49개 종목에서 그동안 같고 닮은 실력을 겨뤘다. 이들을 보기 위해 전국 각지의 관광객은 물론 해외동포까지 전남을 찾으면서 모처럼 도내 곳곳이 사람들로 북적이고, 유명 음식점은 예약이 몰렸다.

전남도는 지난 2018년 전국체전 개최지로 결정되자마자 수준 높은 전남의 역량을 전국민에게 보여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폐회식이 19일 오후 목포종합경기장에서 열리고 있다. 전남이 전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자는 ‘울림 하나된 우리’ 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특별취재반

여주기 위한 전략 수립에 나섰다. 내부 준비를 거쳐 2021년 5월 상징 엠블럼·마스코트·포스터 공모, 2022년 10월 1차 준비 보고, 2022년 12월 조직위원회 출범 등을 거쳐 개최회식 총감독에 박명성 예술감독을 위촉했다. 박 예술감독은 이번 체전 하이라이트인 개최식에서 뮤지컬과 마당놀이, 문화 예술과 최첨단 미디어를 융복합시켜 ‘옹비하는 전남의 이야기’로 엮어내 전국민의 찬사를 받았다. 개최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내외, 정부부처 장관들은 개최식 장면을 언급하며 높이 평가했고, 관람객 모두가 순간순간마다 감탄을 자아내기도 했다.

22개 시·군 108개 경기장에 배치돼 전남도, 시·군 공무원들과 체전의 성공 운영에 힘을 보탠 4028명 자원봉사자·도민 응원단의 열정과 차량 2부제, 쓰레기 안 버리기 등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도민들의 높은 시민의식도 전국체전을 ‘역대급’ 전국 단위 행사로 만들었다. 도민들은 또 정성 어린 준비와 따뜻한 친절로 전남을 찾은 선수와 관람객을 맞이했으며, 전남도는 교통·음식의료·환경·안전·숙박·식품 등 각 분야별 상황실을 운영해 모든 상황에 적절히 대처했다.

특히 안전 체전을 위해 각종 시설들을 철저히 점검하고, 개최식과 인기 종목의 경기가 열리는 경기장 주변의 교통과 주차 혼잡을 사전에 방지했다. 전남도와 시·군은 목표를 중심으로 전남을 찾은 관람

객들에게 경기 외에 다양한 볼거리와 이벤트를 개최했다. 개그쇼, 지역축제와 연계한 전국체전 기념 음악회, 국악 뮤지컬 등이 특색있는 전남의 이벤트를 선보여 전남을 다시 찾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선수들의 뜨거운 땀과 눈물, 관중들의 열띤 응원과 함께 빛났던 이번 전국체전은 온 국민의 가슴 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며 “전국체전의 가장 큰 성과는 전남도가 ‘글로벌 관광·체육·문화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역량과 잠재력을 국내외에 보여줬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남의 금지인 전통문화와 미래 전남을 이끌 최첨단 기술이 어우러지는 개최식이 전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자원봉사자들과 도민들이 수준 높은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윤현석 기자 chadol@·특별취재반

전남 4위·광주 11위 ... “내년 경남서 만나요”

MVP 황선우·광주 문건영 7관왕

15년 만에 전남에서 역대 최대규모로 열린 제104회 전국체육대회가 일주일간의 열전을 끝내고, 2024년 경남에서 만날 것을 기약했다.

대한체육회는 19일 목포종합경기장에서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폐회식’을 열고, 7일간 진행했던 경기의 성적 발표 후 종합 시상식을 했다.

‘울림 : 하나된 우리’를 주제로 한 폐회식은 식전 행사를 시작으로 합창공연과 전남도립국악단의 가무악, 대회 주요 장면 영상 상영이 펼쳐진 뒤 시상식이 진행됐다.

전남선수단은 금메달 60개, 은메달 59개, 동메달 74개 등 메달 193개로 총 4만9466점을 득점해 종합순위 4위를 기록했다. 경기도가 총 6만 4856점으로 종합순위 1위를 차지하며 우승했다. 이어 서울이 5만3042점으로 2위, 경북이 5만 1445점으로 3위를 차지했다.

광주선수단은 금메달 52개, 은메달 39개, 동메달 58개 등 총 149개의 메달로 3만2591점을 얻어 17개 사·도 중 종합 11위를 기록했다. 대회 MVP는 대회신기록 수립과 함께 수영

5관왕에 오른 황선우(강원도청)가 차지했다. 이날 진행된 MVP 기자단 투표에서 63표 중 57표를 받아 압도적인 표 차로 팀 동료 김우민(2표)을 제치고 MVP를 차지했다. 이로써 황선우는 3년 연속 전국체전 MVP로 선정됐다. 광주체고 문건영은 기계체조 남고부에서 104년 전국체전 역사상 첫 7관왕의 대기록을 달성했다.

모범선수단상은 강원특별자치도가 차지했고, 전년 비례 성적 향상을 거둔 전남도선수단은 성취상을 수상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전국체전은 3년 만에 정상 개최된 대회로 위기를 딛고 열린 의미 깊은 대회였다”라며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김대중 전남교육감 또 전남도민 및 선수·자원봉사자분들께도 각별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회기 하강식이 이어졌으며, 계양대를 내려온 대회기는 차기 개최지의 경남지사에게 전달됐다. 이후 김영록 전남지사의 환송사,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의 폐회선언이 끝나자 성화 불이 꺼지면서 전국체전의 대장정이 마무리됐다. /특별취재반

사랑과 감사의 69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3]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전국체전 특별 취재반	
김대성 체육부장	나명주 사진부장
장윤영 사회부 기자	김진수 사진부 차장
최류빈 문화부 기자	

THE NEW GENERATION
윤조에센스 6세대

Sulwhasoo